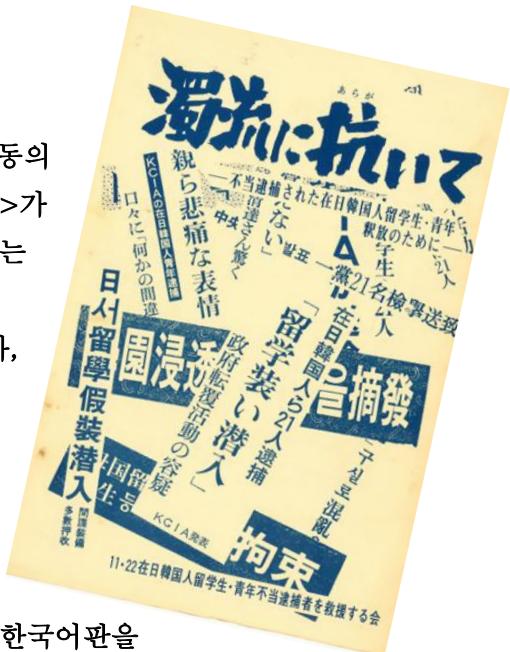


히다 유이치 (번역 야마네 토시로) 속·극사적 시민운동의 기록 <그 5> '11.22 사건'

■ 한국어판 머리말 ■

나는 「속·극사적 시민운동의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 5>가 '11.22 사건'입니다. 이 에세이는 『극사적(極私的) 에세이-코로나를 마주하며』(사회평론사, 2021년, 총 7화)의 속편입니다. 올해는 '11.22 사건'으로부터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울에서 기념 집회가 열리지만 나는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의 한국어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번역을 야마네 토시로(山根俊郎、무궁화회 회원)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던 지원 운동의 일단을 한국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자의 제작자, 『탁류에 항거해』 내가 썼다. 표제는 김종팔씨의 제안. 일본 신문기사와 함께 한국 신문기사를 번역해서 출판했다. B5판, 40페이지의 책자다. 번역은 무궁화회 회원들이 분담했다.

「11·22」、이건 11 월 22 일의 일입니다. 1975년 한국에 유학중인 재일교포가 겸거된 날이다. 일본에서 구원을 위한 활동이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11·22 사건」이라고 했다. 지원 모임의 명칭은 「11·22 재일 한국인 유학생·청년 불법체포자를 구원하는 모임」, 사무국장은 구와바라 시게오(桑原重夫) 씨. 대표는 없었던 것 같다. 「11·22 Q」라고 약칭하고 있었다.

책자에는 13 명의 이름이 있다. 그 뒤 체포자가 증가했다. 고베 (神戸) 관련해서도 이현지 (李憲治) 김태홍 (金泰洪) 서성수 (徐聖壽) 씨가 겸거됐다.

도시샤대학교 (同志社大学) 졸업생인 김철현 (金哲顯) 씨는 고베에서도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지원 모임이 만들어졌다. 고베 꽃시계 앞광장 단식투쟁에는 츠지 켄 (辻建) 목사, 나카모토 유키야 (仲本幸哉) 목사 등이 참여했다. 밤에는, 위험하니까?, 구모치 교회(雲内教会、神戸市灘区、코베시 나다구)로 이동했다. 나는 단식에는 참가하지 않고 전단지 만들기 등에 뛰어다니고 있었다.

자료를 찾아보니 「김철현군 등에 대한 사형집행 저지 모든 정치범을 즉시 석방하라」라는 책자(B5, 16 쪽)가 있었다. 발행은 재일교포 정치범의 즉각전원 석방을 요구하는 2/20 효고일한연대집회실행위원회 (兵庫日韓連帶集会実行委員会) (부름 인, 야마구치 카즈오(山口和男、김철현군을 구하는 효고현민의 모임 외+4 단체)가 있다. 연락처는 고베학생청년센터. 단식투쟁 기록도 있다. 이 효고현민의 모임의 전단지도 2 종류 있다. 모두 「롯코 아카이브 <https://ksyc.jp/rokko-archive/>」에 붙였다. 이 전단지의 현민회 연락처는 나카모토 유키야 목사의 구모치교회로 되어 있다.



또 다른 자료도 나왔다. 『「11·22 구원회」 고베 그룹』(1976년 9월 1일 발행, 연락처: 일본 기독교단 고베 구모치교회 (神戸雲内教会), B5, 16쪽)이다. 「18명의 청년에 대한 2심 사형 중죄 판결 공격에 항의를! 11·22 불법 체포된 재일 한국인 유학생·청년들을 구하자」가 표제. 구와바라 시게오 (桑原重夫) 씨의 논문(『파방법 연구』 1976년 8월)과 『세계』 1976년 9월 논고 등이 수록돼 있다. 표지의 글씨로 보면 히지카타 카츠히코 (土方克彦) 씨가 편집한 것 같다. 손으로 직접 쓴던 시대는 필자를 특정할 수 있어 편리하다. 「50 엔」이라고 빨간 스템프가 찍혀 있다.

김철현 씨는 청구문고 (青丘文庫 조선 근현대사 전문 도서관) 의 「한일재일기독교사연구회」(대표 한석의 (韓皙曦), 사무국장 쿠라타 마사히코 (藏田雅彦))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주제는 「나와 기독교」(1990년 7월). 우주론적인, 기독교와는 별로 상관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난다.



첫 번째 『탁류에 항거해』, 잘 팔려서, 몇 번이나 증쇄했다. 아마 팔천부 정도 팔리지 않았을까 싶다.

얼마전(9월 27일) 정승박 (鄭承博) 씨의 한국어책 출판기념회에서, 김종팔 (金鐘八) 씨를 만났다. 김씨는 1만부 팔렸다고 한다. 또 김씨에 의하면 처음은 고베의 인쇄소, 나머지는 당시 신좌의 전문의 인쇄를 도맡아 하고 있던 칸사이 (関西) 프린트 센터라고 한다. 제 수중에 이 책자가 3권이 남아 있는데 표지 색상이 빨간색과 크림 두 가지가 있다. 고베(神戸)에 있는 인쇄소는 공동 출판 (共同出版) .

당시, 거기서 토리이 잇페이 (鳥井一平、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 씨가 일하고 있었다. 저의 Facebook에 토리이씨로부터

「인쇄에 관련된 추억 깊은 표지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고베 대학 (神戸大学) 11.22 구원회도 결성」이라고 코멘트가 있었다. 나는 고베대학에 11.22 구원회가 있었다는 것은 모른다. 후일 도리이 씨가 보낸 메일에는 「당시 고베대 이과정 자치회가 사이에 들어가 조문연 (朝文研) 과 한문연 (韓文研) 의 브릿지 공동투쟁으로 고베대학 11.22 구원회가 생겼다」는 것.

또 자료를 찾아보니 『1975.11.22 「북한 간첩단 사건 자료(신문)-불법체포된 재일한국인·유학생·청년·석방을 위하여-'(1975.12.1 발행, 11.22 구원회)』가 있었다. B5, 16 페이지. 일본 신문기사와 한국 신문기사(동아일보 1975년 11월 22일)다. 번역은 무궁화회의 사쿠마 히데아키 (佐久間英明) 씨 와 카시마 세츠코 (鹿嶋節子) 씨와 나. 이것도 손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글씨로 알 수 있다. 표지도 나의 세 글자다. 아무래도 『탁류에 항거해』는, 이 책자의 인쇄소판으로서 발행해진 것 같다. 당시 한국의 신문 기사는 한자가 많다. 번역할때는 정말 도움이 된다. 『탁류에 항거해』 2호는 1976년 11월 22일 발행. B5 판, 88쪽. 1호보다 상당히 두껍다. 신문 기사, 관계자의 증언이 귀중하다. 표지의 제목에, 또 내 글씨가 쓰이고 있어. 기쁘다.



학생센터의 조선어 강좌는 이 사건과 이상한? 관계가 있다. 석방돼 일본으로 돌아온 김동휘 (金東輝) 씨가 조선어 강좌 강사가 됐다. 인기강사로 맥주를 좋아하는 학생과 특히 마음이 맞아 수업중부터 마시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후에 「귀국해서 일본의 상황을 보는게 딱 좋은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그후 동일한사정으로 풀려난 유영수 (柳英數) 씨도 강사가 됐다. 유씨는 부인과 함께 소문난 한식당을 열었고, 무궁화회 모임인 '맛집 모임'에서도 두세 번 방문했다.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자료에, 김동휘씨의 『조국과 나·귀일 한국 정치범·김동휘씨의 증언』(1981년 11월 22일 재일 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교포 모임 발행, B5, 16쪽, 200엔)이 있다. 표지 사진은 공판정에서 버스로 구치소에 행하는 11.22 사건 피고인들. 중앙은 「김동휘씨」라고 돼 있다.



재일정치범은 아니지만 교토대학(京都大学)에 유학중 조총련과 접촉하였다라는 혐의로 귀국 후 체포된 장의균(張義均)씨가 있다. 나도 유학 중에 만난 적은 있다.

장씨 체포 신문기사에 제 이름이 나와있다고 한국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훗날 보내주었다. 읽고 깜짝 놀랐어. 내가 그를 「포섭」한 것으로 돼 있다. 물론 아니다.

한국에서도 지방 신문은 당국의 발표를 장황하게 게재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들었다. 기소장을 그대로 게재한 것 같다.

그 신문기사, 이번에 학생센터 서고를 대수색했는데 보이지않아서 아쉽다.

얼마전에 장씨와 오사카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했어. 이 신문기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결국 8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다고 했다. 끔찍한 이야기다. 물론 그도 재심 재판에서 무죄로 돼 있다.

김동휘씨는, 무궁화회의 모임의 게스트 닌에이에도 와주시고 주제는 「스파이로서 불법체포판결로부터 40년·재심 무죄 판결을 받고」 2016년 1월 16일.

재심 재판이 늦어진 김철현씨도 재심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저마다 손해배상금을 받아도 소중한 청춘은 돌아오지 않는다.

● 김태홍 씨는 옥중에서 건강에 관해 연구하고 책도 펴냈다. 나는 지금도 1년에 두세 번 만나서 마시고 있다. 나는 유기농 운동에도 관련돼 유해첨가물 등에 까다로운 편인데 태홍 씨가 두세 배 엄격하다. 하지만 마실 때는 적당한 것으로 마시고 있다. 학생센터 조선사 세미나 기록을 보면 1998년 6월 13일 「정치범으로서의 나」라는 주제로 강연도 하고 있다.

서성수 (徐聖壽) 씨는 효고고교 (兵庫高校) 고베대학 (神戸大学) 후배이기도 하다. 당시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석방 후 모임 등에서 만나게 되었다. 최근엔 민단 (在日本大韓民國民団) 의 신년회등에서 가끔 만난다. 시내에서 한식당을 차리기도 했다. 무궁화 맛집 모임의 정례때 갔다. 그 후, 폐점했다. 웬일인지 맛집 모임에서 방문한 가게는 그 후에 문을 닫는다?

구원을 위해 모두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구류 중에 면회하기 위해서, '갑자기 연인'이 되어 만나러 가거나, '친했던 선배'로서 면회를 하거나, 여러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또, 한국 유학중, 친구가 차례차례 체포되기 때문에, 하숙집을 정말 그대로 두고 일본으로 도망친 유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 이철 (李哲) 씨는 체포되기 전에 만난적은 없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귀일 후 잘 만나고 있다. 처음에는 영화 「세계인에게 고한다!」 상영운동이 처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영화는 감독·각본은 오카모토 아이히코 (岡本愛彦) 씨, 촬영은 타카이와 히토시 (高岩仁) 씨. 학생센터 등에서 자주 상영회를 열었다. 근데 1977년 개봉이라고 인터넷에 있어. 그렇다면 아직은 이철 씨는 구류 중이다. 그래도 이것도 아무래도 상관없겠지.

센터에서는 코리아 관련 영화를 자주 상영했다. 현재는, 모토마치 영화관（元町映画館）이 생겼기 때문에, 학생 센터에 돌아오는 일도 적어졌다. 학생센터에서의 「코리아 영화 자체 상영회 기록」도 적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1.22>부터 50 년, 당시 나는 25 세. 꽤 젊었어. 올해는 코야마 히사토 (小山帥人) 씨 니시무라 히데키 (西村秀樹) 씨가 다큐멘터리 영화 「교수대로부터의 생활」도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꼭 다시 학생센터에서도 상영하고 싶다. 아니, 모토마치 영화관에서의 상영이 될 수도 있다.

■ 뒷말 ■

저는, 작은 책자라도 「머리말」과 「뒷말」이 없으면 침착할 수 없는 성품입니다. 이번에는 뒷말을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 1~4 는, 이하의 것입니다.

<그 1> 시민운동과 인쇄기들

<그 2> 히로시마 피폭 손진斗 (孫振斗) 씨 재판

<그 3> 시민운동과 컴퓨터들

<그 4> 동아일보 읽는 모임

주제가 꽤 제각각입니다만, 다방면에서 시민운동의 기록을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극사적인 기록입니다.

원래 『극사적 에세이-코로나와 마주하면서』(사회평론사, 2021 년) 전 7 화의 속편입니다. 이상, 모두 「히다, 에세이등 일람」 <https://ksyc.jp/mukuge/hida-esseinadoitirann.htm>에서 볼 수 있습니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코로나에 저항해서 심심풀이적으로 시작한 에세이인데,
여기까지 써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 쓸 주제가 있어요. 당분간,
교제를 잘 부탁드립니다.

2025년 10월 10일 히다 유이치

히다 유이치(飛田雄一、hida@ksyc.jp)

1950년 고베(神戸) 출생. 공익 재단법인 고베 학생 청년 센터 이사장.
재일조선인사운동사연구회 간사이부회 대표,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공동대표, 고베항 전시하 조선인·중국인 강제연행을 조사하는 모임 사무국장,
무궁화회 회원. 저서로 『일제하 조선농민운동』(1991년, 미래사),
『현장을 걷다-일본 코리아 기독교-』(간요출판, 2016년), 『마음에 새기고
돌에 새기다-재일교포와 나』(삼일서방, 2016년), 『여행작가 기분-코리아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로의 여행-』(합동출판, 2017년), 『재론 조선인
강제연행』(삼일서방, 2018년), 『극사적 에세이-코로나를
미주하며』(사회평론사 2021년) 등이다.

히다 유이치 (번역 야마네 토시로)

속 · 극사적 시민운동의 기록

<그 5> '11.22 사건'

2025년 10월 20일 발행

집필 · 편집 · 인쇄 · 발행 히다 유이치(飛田雄一)

〒657-0011 일본 고베시 나다구 츠루카부토 4-3-18-205

e-mail hida@ksyc.jp
